

한국문화교류 소식

13호 2014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박갑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연해주 한인 이주 150주년에 부쳐



이 윤 기

전 (사)해외한민족연구소 소장

연해주는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걸쳐 한민족과는 특별한 연고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대에는 발해의 강역이었고 근·현대에 와서는 이주한인들(고려인)*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선열들의 항일 독립투쟁의 활동무대였다.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가 된 것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발해 멸망 후 중국 지배하에 있었는데 1860년 청·러 간의 북경조약에 의하여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가 될 때까지 미개척지였다. 거기에는 여러 종족의 거주민이 있었는데 그 수는

불과 1만 2천여 명 정도였으며, 그들은 수렵과 어로, 순록사육 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인이 연해주에 거주한 것은 한국 문헌에는 1863년으로 되어 있다. 함경북도 북단의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포시에트 지역의 땅을 개척하여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측 공문서에는 1864년으로 되어 있어 금년이 150주년이 되는 셈이다. 초기 한인 이주민들은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며 현지 개척에도 많은 곤경을 겪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 조선 조정의 감시도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본국에서는 이주민에게 월강죄(越江罪)를 적용해서 이주를 막으려고 했다. 함경북도 북단의 척박한 땅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 건너 기름진 땅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장려는 못해줄 망정 눈이나 감이줄 일이지 그들에게 월강죄를 적용하여 다스렸으니 당시 조선 대신들의 안목이 없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주민들은 강 건너 기름진 땅을 눈앞에 두고 월강죄가 무서워 주저할 수는 없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가 늘어나고 경제·사회적인 기반을 닦아 선열들의 항일 독립투쟁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국권 상실 후 해외망명정부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바로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였다.

그 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지만 70~8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연해주는 21세기 한민족의 진로 개척에 있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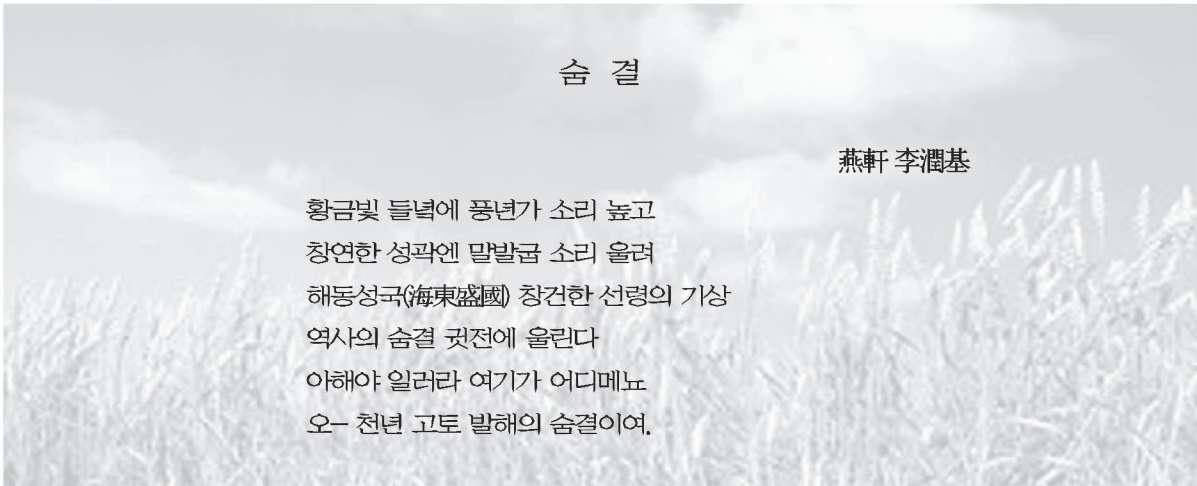
연해주는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국제 위상이 대단히 높다. 이곳은 앞으로 한민족에게는 사활이 걸린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에 연륙(連陸)되어 있어 수세기 동안 사대조공국(事大朝貢國)의 처지에 놓여 있었고 동북아에 국제정치의 소용돌이가 일면 그 격랑에 휩쓸려 자국의 운명을 자의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열강들의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지정학 운명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껏 옥죄어오던 지정학적 굴레를 벗어ना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새로운 생활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종래의 전통적 국경관과 영토관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좁은 한반도 공간을 넘어서 이웃과 더불어 공생할 월경적 협력(Transborder cooperation)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그 대상 지역은 바로 연해주가 최적지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연고성과 지리적 근접성과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비어있는 대지(大地)로써 우리에게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중국의 연해주 진출은 경계하는 반면 한국의 진출은 내심으로 바라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경영하는 존재로서 이주의 본성(本性)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잘 고찰해 보면 끊임없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생활공간을 경영해 왔다. 1620년대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의 험한 파고를 넘어 미국 신대륙에 이주하여 새 생활 공간을 개척한 일이나 1860년대 조선족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하여 신천지를 개척한 일 등은 좋은 사례들이다.

이미 우리는 연해주로의 새로운 이주가 시작되었다. 연해주에 진출한 영농업자들이 보유한 총합 농경지는 전라북도만한 땅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와 더불어 개발하고 공동의 번영을 누리게 되면 미·일간의 하와이 같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하와이는 형식적으로 미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는 일부 영토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하등 마찰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인류문화사의 변천 추세는 다민족사회, 복합문화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창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의 진취적 안목과 과단성 있는 추진은 연해주를 우리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는 감회는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여기에 시(詩) 한 수를 부친다. ☞☞☞☞☞



숨 결

燕軒 李潤基

황금빛 들녘에 풍년가 소리 높고
창연한 성곽엔 말발굽 소리 울려
해동성국(海東盛國) 창건한 선령의 기상
역사의 숨결 귓전에 울린다
아해야 일러라 여기가 어디메노
오- 천년 고토 발해의 숨결이여.

* 고려인[高麗人] :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내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러시아어로는 '카레예츠' 라고 하며, 현재의 한인 교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Koryo-saram)이라고 부른다.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 쾌속 순항 중!



강 의 산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어과 교수

1990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몽골의 국교가 수립된 뒤, 몽골에서는 몽골 외교부 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 강좌가 최초로 개설됐다. 이것이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의 효시이며, 이후 각종 주요 대학교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꾸준히 개설되면서 정규 교육 기관의 한국어 수확자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은 1992년 9월부터이다.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은 1991년 몽골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었으며, 한-몽골 수교 이전의 북한어 교육은 북한 유학생들에 의해 수행됐다)의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 교원 파견에서부터 비롯됐다. 한-몽골 수교는 지난 2014년 3월 26일로 24돌을 맞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포함한 몽골에서의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 공식적인 집계 따르면 이미 거의 10,000명(한국 체류 중 한국어를 배운 몽골 노동자를 배제한 수치)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3월 현재,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으

로는, 몽골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현지 초-중-고교 11개교가 있으며(몽골은 한국처럼 초-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1개 학교로 운영 중이다), 주 3~5회 한국어 수업을 실시 중이다. 그리고 한국학과, 한국어통번역학과, 관광한국학과, 한국어센터 운영 등 22개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있다. 이외에도, 한인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몽골 토요한글학교, 유비엠케이스쿨(UBMK School)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세종학당재단(KSIF=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이사장 송향근)의 승인을 받아 몽골 UB대학교가 운영 중인 유비원(UB1) 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 운영 중인 유비투(UB2) 세종학당,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운영 중인 유비쓰리(UB3) 세종학당, 그리고 후레정보통신대학교(Хүрээ МХТТЦ=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Mongolia)가 운영 중인 유비포(UB4) 세종학당 등 모두 4개의 세종학당이 있으며, 각종 종교 단체 등 몽골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NGO가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몽골로의 문화 상품의 가장 큰 수출국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몽골 텔레비전 방송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15개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한식은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음식이 되었고 울란바토르 시만 해도 한국 식당이 중국 식당에 비해 4배나 많다. 대한민국의 케이 팝과 비디오 게임은 몽골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몽골에 몰아치는 한국어 (후) 폭풍' 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 보급에 있어 장족의 발전이다.

아울러, 봄에는 해마다 4월에 몽골인문대학교(UHM) 주최의 몽골대학생한국어말하기대회가, 가을에는 한글날(10월 9일)을 전후로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한글 큰 잔치 행사가 몽골 UB大 주최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몽골 현지에서의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가 몽골 대학마다, 교수마다 중구난방인 현실은 참

으로 유감스럽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공식적인 한글 표기와 몽골인 개개인이 선호해 온 발음에 따른 한글 표기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판국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일단 몽골 사람들이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하고 발음대로 적는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에 익숙해지면 바로 잡기가 힘들다. 글쓴이는 복수 표준어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복수 외래어란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이걸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몽골 낱말의 현지 발음과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표기 원칙에 의해 확정된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의 발음이 괴리가 심각한 현실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되풀이되는 혼선과 무지를 어떻게든 끝장내야 한다. 외래어표기법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몽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몽골어의 한글 표기 원칙 확정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한국어 기사

아르헨티나 최초, 초·중학교 정규 과목에 한국어 채택

주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원장 김영순)은 8월 1일, 뚜꾸만 주에 있는 '쁘레센타시온 데 마리아 학교'에서 한국어수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2학기부터 초등 4학년부터 중등 6학년까지 9개 반 학생 185명이 정규 수업시간에 주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협약식에는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학기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스꼬바르 교장은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한국의 발달된 문화, 과학, 예술 등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초·중등학교 한국어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뚜꾸만의 라울 스칼라브리니 오르띠스(Raul Scalabrini Ortiz) 중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별한 형태로 20여 명의 학생들이 주당 1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 Tecnica 18번 중학교에서도 주당 4시간씩 2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2014.08.06.

자파리 시리아 난민촌에도 희망의 꽃은 피어나고 있다



이 철 수 (Dr. Charles Lee)
자파리 한국 태권도아카데미 교장, 기아대책기구(KFHE) 요르단 대표부

요르단 북쪽, 자파리 지역에는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밀려들면서 형성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난민촌이 있다. 현재 12만 명 정도의 난민이 살고 있으며, 그 중 37%가 만 5세에서 17세 미만의 어린이(남자 21,781명, 여자 21,193명)로 대부분 전쟁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다. 단순히 넘겨버릴 수 있는 일도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돌을 들어 친구들을 때리고 싸우는 일이 예사이다.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 지역에 간이식 텐트와 컨테이너 박스에서 힘겹게 생활하며 무질서 속에 지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 질서와 예절, 도전과 성취를 통해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할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무도! '태권도'를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은 2013년 7월 15일, 현재의 '한국 태권도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했다.

이곳에서 태권도 학교를 시작한 것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겐 기적이었다.

처음에 나는 개인의 신분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책임자를 만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난민촌 내에서 태권도 학교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고 Base Camp에 장소를 배정받아 대표부 사무실을 열게 되었다. 처음엔 아무런 재정적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국제구호개발기구(IRD)에서 운영하는 대형천막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그 바닥에 모래를 깔고 힘겹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텐트 내에 뿌연 모래 먼지로 인해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천식으로 돌아섰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도 있고 침을 뱉는 자들도 있었다. 질이 나쁜 난민촌 악동들이 내가 입고 있는 자켓을 빼앗아 각자 한 조각씩 옷을 찢어 나누어 간 것도 있었다(지금은 그 아이들이 태권도 학교 학생이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난민촌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 이들 가족들을 직접 대면하고 한국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며 우리가 어떻게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나누게 되면서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40여명으로 시작된 학생수가 1년이 지난 현재, 총 270명(남자 170명, 여자 100명)의 난민어린이들로 늘어났으며, 향후 10년 내에 5,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수업은 모두 제 자리에 앉아 먼저 시편을 암송하고 시리아 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도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 교육도 함께 강조된다. 이러한 교육이 상처와 좌절을 경험한 난민 어린이들에게 치유는 물론, 새로운 세계관과 도전과 성취 및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본 UNHCR의 추천으로 미국 영상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After Spring'을 제작하기도 했고 KBS "세계는 지금"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곳 난민촌에서 "꽃"으로 통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태권도 교육을 통해, 무질서한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며, 세계시민으로서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불철주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맘을 흘리는 한국인 교관들의 헌신에 크게 감사하고 이들을 존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들이 어려울 때 아픔을 함께 한 은인의 나라로 기억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활동에 감동을 받은 주민들도 합세하여 20여 명 중 12명의 현지 교관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흰 띠부터 시작하여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파랑 띠와 초록 띠를 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형편이지만 지난 달 심사에서 총 24명의 아이들이 벌써 밤색 띠를 받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다음 단계인 빨강 띠를 띠게 되면 전원 합숙훈련에 들어가 정신교육, 질서교육 등의 지도자교육을 받게 되고 여기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초단심사를 볼 자격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검정 띠 1단 승단 심사에 합격한 학생들은 100여 명의 신입학생들을 지도할 보조사범으로 임명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다보면 매년 약 100여 명의 초단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승법번식을 하면서 10년 후면 정말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장차 이들이 자라나 시리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태권도 도장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시리아 재건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태권도 교육을 중

심으로 초석을 놓고 개척자 정신 교육으로 국민정신을 바꾸어 나가며, 그 위에 한글, 영어 등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과 한국으로 유학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년 후, 한국에서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대회에 시리아를 대표해서 선수단을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우승하게 되면 절망의 땅 시리아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될 것이고 이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다.

60년 전, 마치 지금의 시리아 땅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고 개척정신으로 다시 일어난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 한국인! 나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우리의 태권도를 통해 처절한 난민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전쟁 난민과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꿈을 꾸며 달려갈 것이다. 오늘도 한국태권도아카데미 학생들은 흰 도복에 태극마크를 달고 학교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우리는 자따리에서 시리아의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 태권도 아카데미가 있는 한 이들의 소망과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

* Za'atari Camp에서는 태권도, 영어, 한국어, 음악, 미술 등으로 재능을 기부할 인재들과 교육기자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palcaanaan@gmail.com(Dr. Charles Lee)



여자 어린이들의 태권도 연습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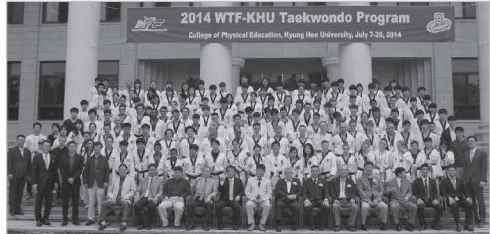


난민촌에 학교를 세우고 한국을 알리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모습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4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경희대 국제태권도아카데미(ITA)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국외 태권도 수련자 대상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7월 7일~20일(2주), 8월 4일~13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개회식(7월 9일)에는 WTF 총재이자 본회 총재인 조정원 총재와 박갑수 이사장이 참석하여 21개국에서 온 82명의 참석자를 환영하였다. 이들은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도 배운다. 본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2014 홍천 마리소리 세계음악축전 개최

본회가 협찬한 '2014 홍천 마리소리 세계음악축전'이 8월 15일~16일, 강원도 홍천 마리소리 골에서 양일 간 열렸다. 올해는 민요, 전통춤, 사물놀이 등의 우리 음악 외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 어우르는 세계음악축전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한국 음악과 외국 음악과의 어울림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WATK) 임원과의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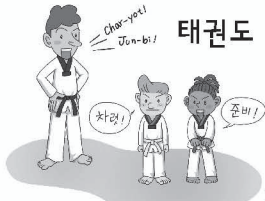
국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한국교육원 등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 모임인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WATK, 회장 심용후) 임원들이 본회를 방문하였다. 각국 책임자와 연계하여 전 세계 한국어교육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는 협회는 앞으로의 사업 구상 및 진행 시 서로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태권도원 개원식 참석

9월 4일, 태권도원이 개원식을 가졌다. 태권도의 날에 실시되어 더욱 뜻 깊게 치러진 개원식에는 2천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였다. 본회에서는 조정원 총재(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박의근 재정위원장(세계태권도연맹 고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태권도원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냈다.

■ ICKC 9월 문화탐방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역사문화 탐방

ICKC 9월 문화탐방은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사업추진회'가 주최하는 연해주 공식 방문단으로 참가한다. 본회 회원 25명은 2014년 9월 19일~22일까지,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를 방문하여 고려인 이민 역사를 기리고 한민족 교류 및 남·북·러 협력의 미래가 펼쳐질 현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태권도 기사

'태권도원', 태권도의 날에 문 활짝

태권도의 날인 9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이 정식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국내외 태권도계와 체육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태권도원은 여의도의 절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배 크기의 세계 최대 단일 스포츠 종합 시설이다. 4,500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박물관과 체험관, 연수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세계 태권도인의 교육·수련·연구의 중심이자 태권도 정신 및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처: 무카스 2014.09.04.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문화원 추천도서-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엮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엮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식의탑
 에피스테메
 press.knou.ac.kr

후원금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